용맹한 기상으로 연화세계 만들자

중중제망의 연기세상 펼쳐가는 한해 됩시다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불조장중불전과
(佛祖場中不展戈)
후인강지기효와
(後人剛地起嚆訛)
도태불전천자령
(道泰不傳天子令)
시청휴창태평가
(時淸休唱太平歌)

부처님과 조사가 계시는 곳에는 다툼이 없거늘
후인이 공연히 옳고 그름을 논함이로다.
진리의 도가 넓어지면 천자의 법령을 전할 것도 없음이요,
세상이 깨끗하고 깨끗한 시절에는 태평가를 부를 필요조차 없음이로다.

임인년(壬寅年)의 새아침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전 세계에 가득한 코로나 질병과 지구촌의 갈등과 대립, 기아와 전쟁 등 칠흑(漆黑)의 무명(無明)을 몰아내고 국민의 가슴마다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祈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은 연기법(緣起法)입니다.

즉 인연생기(因緣生起)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입니다.

모든 존재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여 성립하였다가 조건이 변함에 따라 사라지는 중중제망(重重帝網)의 연기세계입니다.

전(全) 세계적으로 창궐(猖獗)한 코로나 질병의 공포와 고통은 인간의 자만심(自慢心)으로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훼손에 대한 자연의 대응(對應)입니다.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나와 더불어 남이 존재하고,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며 인간과 더불어 자연이 공존(共存)하는 만유동일체(萬有同一體)입니다.

새해에는 유마거사의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고, 중생이 나으면 보살도 낫는다."라는 대자대비(大慈大悲)의 가르침으로 종교와 이념, 남녀와 세대, 계층과 빈부를 초월(超越)하여 모두가 보살심(菩薩心)을 가져 개개인이 행복(幸福)하고 세상이 화평(和平)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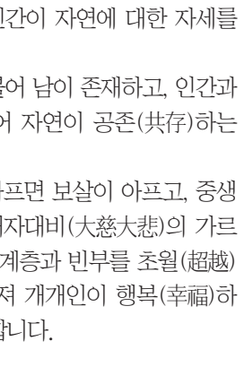
모든 인류(人類)시여!

나고 날 적마다 영원한 행복과 복락(福樂)을 누리고자 한다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話頭)를 일상생활(日常生活)하는 가운데 하루에도 천번만번 챙기고 의심하면 몰록 '참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면 만유의 본질을 바로 보는 안목(眼目)이 열리어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동체대비의 비원(悲願)을 실천하여 인류가 하나 되어 태평성대를 누립시다.

공심으로 사회의 빛 되자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공심(公心)을 밝혀 공도(公道)를 세웁시다. 새해의 대일(大日)이 밝았습니다. 대일의 무량광명은 시공을 넘어서 뭇 중생의 삶의 터전에 한없이 비추니 누리에 새날의 희망 가득하길 서원합니다.

공심(公心)은 밝음이고 사심(私心)은 어둠이라. 공사(公私)를 세워서 진실이 살아나도록 진각眞覺의 종문을 법계에 헌공(獻供)하니 각성(覺性) 깊은 선남선녀가 정토를 만듭시다.

지혜 밝고 공도를 세워야 지도자가 되고 국민이 먼저 공심을 일으켜 성스럽게 되면 사도(私道)의 덫을 뛰어넘는 맑은 사람이 따뜻한 웃음 짓는 나라의 길잡이가 됩니다. 생명은 중중 무진, 서로 어울려서 저마다 빛 품은 품격으로 장엄세계 나툽니다.

미증유의 역병이 인생의 안락을 위협하지만 공존의 자비심으로 그 아픔을 이겨갑시다. 종교가 공심을 세워 본보기를 보이면 정치는 정법을 따라서 정론으로 겨루고 경제는 공영을 향하여 발전을 더 하여 다 함께 즐거운 세상이 여기 열립니다.

기쁨이 슬픔을 다독여서 새 기운을 북돋워서
새해에도 손잡고 화순(和順)하며 수행합시다.

불이 · 화쟁 정신으로 희망 만들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귀하디귀한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국민과 불자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코로나19와 이후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 일상으로의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 하였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듯이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일지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께서는 품고 있는 호랑이와도 같은 강직함과 인내심으로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다름과 차별에 집착하는 갈등과 정쟁은 버리고 불이(不二)와 화쟁(和諍)의 정신으로 함께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합시다.

임인년 새해 우리 불교계는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민족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그리고 활용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주인이 됩시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불자 및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올해도 고통과 시련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변이가 발생해 전 세계를 다시 팬데믹으로 몰아넣고, 그에 따른 세계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경제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에 의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우리나라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다,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격변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고 존재해나가야 할 생명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와 의무와 책임은 인간으로서 바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할 명제입니다.

행복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만이 우리는 그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곤란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 어려움과 고통을 진흙으로 삼아 우리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희망의 연꽃은 반드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희망과 용기로 꽃피우는 새해되길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용맹과 지혜의 밝은 기상으로 임인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해, 임인년에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일체의 병마가 사라지고, 경제난과 각종 사회악이 해소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불자와 국민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큰 희망으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불편과 피로가 쌓여가지만, 더욱 굳건한 원력으로 청정한 삶을 유지하며 상생과 화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흙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되고, 대자대비의 보살이 되어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며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새해에는 모든 사람이 지혜의 눈을 뜨고 자비의 마음을 열어 일체의 고난을 극복하고 건강과 행복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삶의 터전이 곧 보살의 정토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새해 새 빛이 온 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은 지구촌을 넘어 사이버 세상까지 능히 비춥니다. 언제, 어느 곳을 가리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 새 희망을 노래합시다. 서원을 세웁시다. 믿음으로 정진하면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는 마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계행과 하심, 그리고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밝음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지혜로 어리석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성을 찾아 부처님처럼 살아갑시다.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한 새해입니다. 국민은 개인의 행복을 지키면서 더불어 살려는 노력을 하고, 국가는 국민의 화합과 안전을 도모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발전을 이루어 행복지수를 더 높이는데 진력해야 합니다. 장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인류가 다함께 잘 사는데도 기여해야 합니다.

새해는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 120주년을 맞이합니다. 시대에 맞는 교화이념과 방편을 펴는 종단으로서 현세정화를 위한 진호국가불사에 매진해왔던 것처럼 우리 삶의 터전이 보살의 정토가 되도록 새롭게 서원하고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진언행자와 불자, 나아가 국민의 복지증장이 회당대종사 탄생 120주년을 뜻깊게 하는 우리들의 서원이 되도록 합시다. 상호공양 정신으로 우리 다 같이 어울려 살면서 만다라 꽃피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갑시다.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한 해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사람의 이동과 지인의 만남이 제한되었던 신축년의 해가 저물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 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희망과 용기를 북돋게 해 새로운 힘을 얻게 합니다. 이러한 희망과 용기를 오랜 시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옛 부처와 함께 가면 신선하고 즐거우니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법화경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기운이 바로 설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고 좋지 않겠습니까!!

임인년 한 해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 생활해 나간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역병도 물리쳐 자유롭고, 역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와 같이 용맹정진하라

지허 스님
태고종 종정



새해는 임인(壬寅)년이라는 호랑이를 상징하는 해이다.

불교에서 호랑이는 위엄과 용맹함, 지혜를 수호하는 영물이다. 당대의 선지식을 호랑이라 지칭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승보살이자 협시보살 가운데 하나인 문수보살이 중생들에게 지혜를 전할 때 호랑이가 함께 등장하는 것도 그런 연유다.

도(道) 닦는 사람은 승속(僧俗)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일상(日常)속에서 지혜의 눈으로 참구하고 법을 보시한다.

예로부터 도(道)를 성취한 대선지식(大善知識)들이 용맹정진 한다는 것도 바로 이 호랑이의 기상처럼 용감하게 참구한다는 뜻이다.

백천만겁에도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 달력이나 넘기면서 호구지책(糊口之策)에만 메여서 살아야 되겠는가.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정진하고 지혜롭게 살며 일편단심 도(道)에 드는 마음으로 화두를 참구하면 반드시 견성 성불한다.

물질의 복은 껍질이고 마음의 복은 복의 내용이다.

코로나 병이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복(福)의 내용을 채우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부대중들이여! 쉬지 않고 참구하여 육체에 코로나도 이겨내고 마음에 깨달음도 얻길 바란다.

바른법으로 정진하라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실상은 이름과 모양을 떠나 있고 법신은 자취가 없건만 인연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거울 속의 모양이 있다가 없어짐과 같구나.

모든 분별은 중생의 망상이라.

대상을 따라가는 대립된 경계에서 벗어나 버릴 것도 취할 것도 없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 덧없는 세월을 한탄하지 말고 한결같은 신심으로 오늘을 준비하십시오.

계를 지니고 기도와 선정을 닦으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며 수행과 기도가 진정한 보배임을 알아 자기를 깨닫는 공부를 하여야합니다.

고통 없이는 어떤 행복도 없으니 고집과 아집을 떠나, 자비의 삶을 사는 가운데 새해의 대문이 열립니다.

기나긴 꿈속에서 깨어날 인연을 만났으니 오직 바른 법에 의지하여 정진하십시오.

실천적 삶으로 위기극복

법공 정사
총지종 종령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널리 비추어져서 일체의 곤란과 액난이 소멸되고, 마음에는 밝고 큰 지혜의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고(苦)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겪는 인생고(人生苦)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겪는 중생의 공통된 인연사(因緣事)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개고(一切皆苦)는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나 세상에 대한 염세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로써 고난과 괴로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는 일체중생이 빈곤과 가난, 질병과 고통에서 해탈하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지난해에 어려움이 컸지만, 올해는 일체의 곤란과 액난이 일어나지 않고 일체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져 안락과 평온이 넘쳐나기를 희망합니다.